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8. 29(목)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내년도 국비건의사업 4조 549억원 정부예산안 반영** 정부예산안 미반영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토록 총력 다할 것	예산담당관	
② **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인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환경정책과	사진별첨
③ **경북도,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다!** 2019 제2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57명 지원	사회적경제과	
④ **경북 청년 키친랩, 청년들의 부엌 개소!!** 외식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전수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아카데미, 메뉴개발 테스트 공간 제공	일자리 청년정책관	사진별첨
⑤ **경술국치, 아픔의 역사 잊지 않고 가슴 속 깊이 새겨** 경북도, 경술국치 109주년 추념행사 개최	사회복지과	사진별첨
⑥ **'제3회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엄' 개최**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극저온전자현미경을 활용한 신약개발 중점 토론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 해외연구소 신약전문가 대거 참석	과학기술 정책과	사진별첨
⑦ **귀농 전국 1위, 경북으로 귀농하자!** 경북도 및 11개 시군 '어 팜 쇼(A-Farm Show) 박람회' 참가, 귀농 1번지 종합 정보 제공에 나서	농업정책과	
⑧ **'2019 경북 농어업인 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식량생산, 농수산물수출 등 10개 부문에서 최고 농어업인 선발	농업정책과	
⑨ **환절기 · 추석명절은 감염병 예방예절로 건강하게!!** 손 씻기 · 기침예절만 잘 지켜도 많은 감염병 예방 경북도, 건강을 위해 기침예절 · 올바른 손 씻기 준수 당부	보건정책과	사진별첨
⑩ **경북도, 벌초·성묘객 편의 제공을 위해 임도 개방** 개방에 앞서 도내 임도 전구간 일제정비 노폭이 좁고 곡선 구간이 많아 안전운행 당부	산림자원과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제6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개회식 참석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9(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작성자	과 장	박 재 구	
			팀 장	이상현	주무관 심화중
		연락처	054-880-2167		

경북도, 내년도 국비건의사업 4조 549억원 정부예산안 반영

- 정부예산안 미반영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토록 총력 다할 것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기한인 9월 3일을 앞두고 경북도의 정부예산안에 담은 국비예산은 4조 549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년 정부예산안 반영규모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예산 규모가 올해 469.6조원 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과 더불어, 지역현안 국비확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등 지역연고 인적네트워크와 도와 시·군이 합심하여 중앙부처 및 정부예산안 반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담긴 도 건의사업 국비반영액을 살펴보면

- 사회간접자본(SOC)분야 2조 4,098억원 (전년 2조 824억 대비 15.7% 증가)
- 연구개발분야 1,978억원
- 농림수산분야 5,538억원
- 문화분야 1,486억원
- 환경분야 2,573억원
- 복지분야 159억원
- 기타분야 4,717억원 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반영 규모인 3조 6,154억원보다 4,39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특히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 전년대비 15.7% 늘어나 지역현안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포항~영덕간고속도로 건

설(남북7축) 939억원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4,980억원 ▲동해중부선철도부설(포항~삼척) 3,185억원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포항~울산) 849억원 ▲영천~신경주복선전철화 786억원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건립 85억원 ▲포항~안동국도확장 226억원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 213억원 ▲울릉공항건설 389억원 ▲생활소비재융복합산업기반구축 30억원 ▲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46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 199억원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5억원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 8억원 ▲매립지정비사업 50억원 ▲영덕강구항개발 175억원 ▲포항영일만항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보강 301억원 ▲국립청소년산림센터건립 90억원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매각 300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으로 ▲사물무선충전(WCoT)실증기반조성사업 6억원 ▲동해선전철화(포항~동해) 200억원 ▲독도전용소형조사선건조 25억원 ▲농소~외동간국도4차로건설 5억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간선도로건설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및 전 공무원들이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이번 정부예산안에 일부 미반영된 사업들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반드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회심의 추가확보 추진 주요사업》

△ 포항영덕간고속도로 (증액 500억)
△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화 (증액 1,000억)
△ 중부내륙(이천~문경)철도 (증액 1,000억)
△ 영일만횡단구간(포항~영덕)고속도로 (신규 100억원)
△ 문경~김천간 단선전철화 (신규 50억원)
△ 경북원자력방재타운설립 (신규 25억원)
△ RoJIC(Robot Job Innovation Center)사업 (신규 20억원)
△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신규 29억원)
△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 (증액 33억원)
△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증액 17억원)
△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조성 (신규 10억원)
△ 한국산림사관학교 설립운영 (신규 43억원) 등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9(목)】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작성자	과 장	김 종 헌	
			팀 장	윤병기	주무관 유정우
		연 락 처	054-880-3533		

경북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줄인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

경상북도는 추경예산 241억원(국비 142억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1만2천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저공해조치사업: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지원

이번 저공해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 160억원(1만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25억원(85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11억원(1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45억원(270대) 등 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차구입 시 최대 3,000만원, 1톤 엘피지(LPG)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 배출가스5등급: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환경부)

** 유로6: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대상차량(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케이티(KT)114 생활정보서비스(114,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1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저감장치가액의 90%(165만원~930만원)를 지원(자부담 10%)하며,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상건설기계(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유의할 점은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사용이 제한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미세먼지특별법시행규칙 제7조)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경북도는 28일 도청회의실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군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고 사업 설명과 함께 추경예산이 연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종헌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해서 도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9(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사회적경제과		
		작성자	과 장	김 상 희	
			팀 장	이명자	주무관 김민지
		연락처	054-880-2617		

경북도,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다!

- 2019 제2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57명 지원 -

경상북도는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 결과 36개 기업 257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2회 모집하며 앞서 지난 3월 제1차 모집 공고 및 심사에서는 85개 기업 480명이 선정·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 제2차 모집은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23일간 신규 22개 기업(150명 신청), 8월 31일로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14개 기업(155명 신청) 등 총 36개 기업, 305명이 신청했다.

이중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57명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신규 기업에는 112명, 재심사 기업에는 145명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9월 1일부터 해당 시·군과 약정체결을 맺고 1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으며, 취약계층 고용 시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경상북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에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둔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의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 취·창업 학교 운영, 사회적경제 2030 미래세대 최고경영자(CEO)발굴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청년상사맨

육성사업 등을 시행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면서,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기반을 확고히 다지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9(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박 성 근	
			팀 장	노세균	주무관 백종성
		연 락 처	054-880-2764		

경북 청년 키친랩, 청년들의 부엌 개소!!

- 외식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 창업준비 및 운영전수 -
-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아카데미, 메뉴개발 테스트 공간 제공 -

경상북도는 29일 경산시 경산역 광장내에 외식업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창업준비 및 운영 공간인 ‘청년들의 부엌’ 개소식을 열었다.

경북 청년 키친랩 사업으로 추진된 ‘청년들의 부엌’은 국비 5억원(특교세) 등 총 11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도내 외식업 예비창업 희망자 누구나가 창업아카데미를 통한 이론교육과 공유 및 개별주방을 통한 메뉴개발 및 테스트, 영업시험 공간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날 개소식에는 최영조 경산시장,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도 및 시의원, 한국철도공사·경북테크노파크 관계자와 외식업 청년창업 참여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인사말씀, 현판식, 시설관람 및 음식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부엌’은 지난해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완공했으며, 1층에는 개별주방·영업시험 공간(홀)과 쉼터, 2층에 공유주방 및 교육실 등을 갖춘 연면적 383㎡으로 건립됐다.

‘청년들의 부엌’은 경산역 광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역사 부지를 임대 제공했다.

경북도는 청년들의 창업 네트워크 공간과 음식판매를 통해 지역 활력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외식업 창업관련 전문경영 기법과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목적으로 외식업 창업아카데미 연

간 12회, 공유주방 내 외식업 메뉴개발 및 테스트 공간 연간 40팀, 개별주방 내 예비창업자 창업체험공간 연간 8팀을 운영한다.

현재 1층 개별주방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청년창업자 2팀이 입주하여 영업 테스트 중으로 꿀떡샌드위치, 마약빵떡 등 빵과 떡을 이용한 디저트 음식인 ‘빵떡쌀롱’과 스테이크 덮밥, 간장비빔국수 등 직접 개발 한 음식을 판매하는 ‘초&덮’ 팀이 창업 준비에 한창이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앞으로 ‘청년들의 부엌’이 도내 외식업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며

“예비 창업자들이 지역 대표음식 모델을 발굴하여 활성화시킴으로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경북 청년 키친랩 - 「청년들의 부엌」 개소식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다양한 메뉴를 자유롭게 실험하고 개발, 판매할 수 있는 테스트 공간 마련

❖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준비 및 운영 전수

행사개요

○ 일　　시 : 2019. 8. 29(목) 16:00～17:10

○ 장　　소 : 경북 청년 키친랩(경산역 광장)

○ 참석인원 : 100여명

- 경산시장, 시 의장, 도·시의원, 道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경북테크노파크·한국철도공사 관계자 등

○ 행사내용 : 경과보고(동영상), 기념사, 축사, 현판식 등

시간계획

구 분	세부시간		주 요 내 용
식전공연 (30분)	15:30～15:55	25 ′	▸ 청년풍물단 지신밟기, 현악4중주
	15:55～16:00	5 ′	▸ 내빈입장
본행사 (35분)	16:00～16:07	7 ′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16:07～16:10	3 ′	▸ 경과보고(스크린 영상)
	16:10～16:14	4 ′	▸ 기 념 사(경산시장)
	16:14～16:30	16 ′	▸ 축　　사(道, 시의장, 도의원, 철도관계자)
	16:30～16:35	5 ′	▸ 현판식, 기념촬영
식후행사 (35분)	16:35～17:10	35 ′	▸ 시설관람, 청년 키친랩 음식 체험 ※ 현판식→1층(개별주방)→2층(공유주방)→1층(음식체험)
	17:10~		▸ 폐 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9(목)】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작성자	과 장	김 상 우	
			팀 장	이도형	주무관 권규보
		연 락 처	054-880-3733		

경술국치, 아픔의 역사 잊지 않고 가슴 속 깊이 새겨

- 경북도, 경술국치 109주년 추념행사 개최 -

경상북도는 29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에서 ‘경술국치 109주년 추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유일 생존지사인 배선두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이달희 경북도 정무실장, 권영세 안동시장, 도 및 안동시의 보훈단체장과 기관·단체장, 학생,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였다.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아 민족의 국권을 일제에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념행사는 국민의례 후 이동일 광복회 경북지부장의 연혁보고, 이달희 정무실장의 추념사, 독립군가 제창, 배선두 애국지사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도에서는 경술국치일(8월 29일)에도 조기를 게양하도록 2015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가정, 기관, 단체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매년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해 오고 있다.

이달희 정무실장은 추념사에서 “경술국치일은 일제에 의해 우리의 국권을 빼앗긴 날로, 경북의 많은 우국지사들이 그로 인해 자정 순국을 하였으며, 다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의 크나 큰 희생이 있었다” 면서 ”경술국치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슴 속

깊이 되새기고, 국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경술국치 109주년 추념행사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를 되새겨, 조국 광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8. 29.(목) 11:00 ~11:50

○ 장　　소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대강당(왕산관)**

○ 인　　원 : 400명 정도

- **애국지사(배선두), 기관단체장, 보훈단체회원, 학생, 도민 등**

○ **주요내용** : 추모벽 참배, 추모공연, 추념식, 오찬

❑ 시간계획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식전	10:45~11:00	15′	추모벽 참배 및 애국지사 위로 인사	내빈
	11:00~11:15	15′	추념공연	풍류콘서트
	11:15~11:20	5′	애국지사 및 내빈소개	사회자
	11:20~11:25	5′	환영인사	안동시장
본행사	11:25~11:32	7′	국민의례	사회자
	11:32~11:37	5′	연혁보고	광복회 도지부장
	11:37~11:42	5′	추 념 사	정무실장
	11:42~11:47	5′	독립군가 제창	성악가 조정민
	11:47~11:50	3′	만세삼창	
	11:50~		폐　식	
식후	12:00		**오　찬**	기념관 구내식당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9(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과학기술정책과		
		작성자	과 장	이 장 준	
			팀 장	강은희	주무관 남현대
		연락처	054-880-2421		

제3회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엄' 개최

-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극저온전자현미경을 활용한 신약개발 중점 토론 -
-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 해외연구소 신약전문가 대거 참석 -

경상북도는 포항시, 포스텍(POSTECH)과 공동으로 29일 포스코국제관 대회의실에서 '세포막단백질 구조기반 신약개발'을 주제로 국내외 세포막단백질 구조분석 및 신약개발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구조기반 신약개발 목표와 함께 글로벌 산학연 기관과의 공동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가속기가 있는 포항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 행사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 4세대 방사광가속기(XFEL)와 활용 ▲ 극저온 전자현미경(Cryo-EM)과 세포막단백질 ▲ 구조기반 신약개발이라는 3개의 주제를 가지고, 글로벌 제약사와 대학·연구소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구조기반 신약개발에 대한 최근 기술 동향과 세포막단백질 구조분석과 이를 활용한 신약개발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 극저온 전자현미경(Cryo-EM) : 고전압 전자빔으로 단백질 구조 고해상도 이미지 획득으로 생명현상과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현미경

우선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날 기조 강연자로 나선 미국 아리조나주립대(ASU) 페트라 프롬 (Petra Fromme) 교수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한 단백질 입체 구조 연구방법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구조 생물학이 도래하고 있고, 세포막 단백질과 주요질

환의 표적 단백질 연구에 가속기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초청 강연자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에밀 파이(Emil F. Pai) 교수와 미국 국립가속기연구소(SLAC)의 아이나 코헨(Aina E. Cohen) 박사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효소 반응의 저속촬영을 보여준 자신의 연구결과와 미국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대해 소개했다.

극저온전자현미경과 세포막단백질연구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본 오키나와 과학기술원(OIST)의 브로노 험블(Bruno M. Humbel) 박사와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젠스 칼슨(Jens Carlsson) 교수는 극저온전자현미경을 활용한 연구방법과 신약개발 연구내용을 각각 소개했다.

구조기반 신약개발 주제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토브 쇼그렌 (Tove Sjogren) 박사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의 구조기반 신약개발에 대해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신약개발의 중요성과 산업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화이자(Pfizer)의 한성일 박사는 최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극저온전자현미경(Cryo-EM)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구조기반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방사광가속기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극저온전자현미경의 필요성과 활용도에 대해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방사광가속기와 함께 극저온전자현미경을 신약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사업’의 국비 지원이 확정된 이후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함께 극저온전자현미경 도입을 통한 실시간 3차원 동적 세포막단백질 분석에 기반한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극저온전자현미경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획기적인 기여가 기대된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 ‘19 ~’23년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458억원(국비 229, 지방비 229)/ 6,012㎡, 4층(지하 1, 지상 3)
○ 세포막단백질 구조 분석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3차원 구조 분석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지역과 국가의 신약개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외의 우수한 산학연 기관과 국제협력을 통해 창업,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제3회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심포지움

행사개요

○ 주　　제 : '세포막단백질 구조기반 신약개발'

○ 기간/장소 : 2019. 8. 29(목) 11:00 ~ 18:30/포스코국제관 대회의실

○ 주최/주관 :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텍

○ 참　　석 : 150명(관련 전문가 및 해외연사 7명)

※ 참석국가(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한국)

○ 주요내용

- 【개회식】 인사말씀(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념촬영, 오찬 등
- 【국제심포지움】 기조강연, 초청연설, 토론 등 ※영어강연

개 회 식

○ 일시/장소 : 2019. 8. 29(목) 11:00 ~ 12:00/포스코국제관 대회의실

○ 참　　석 : 경제부지사, 도/시의원, 포항부시장, 포스텍 총장 등 1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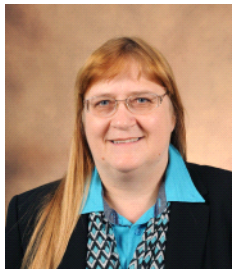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내빈소개, 인사말씀, 홍보영상 시청, 기념촬영 등

○ 부대행사 : 오찬, BOIC 건립 현장/극저온전자현미경실 방문 등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50	20′	환담	포스코 국제관 대기실
10:50 ~ 11:00	10′	사업 브리핑	포스코 국제관 로비 안내 : 장승기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장
11:00 ~ 11:05	5′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 : 경북도 가속기신산업팀장
11:05 ~ 11:40	35′	인사말씀	• 개회사 : 포스텍 총장대행 • 환영사 : 포항시장 • 축　사 : 경제부지사, 포항시의회 의장
11:40 ~ 11:45	5′	홍보동영상 시청	세포막단백질연구소 홍보영상
11:45 ~ 11:50	5′	기념촬영	주요내빈 및 해외연사
11:50 ~ 13:00	70′	오찬	포스텍 중식당
13:10 ~ 14:00	50′	현장방문	BOIC 건립현장 및 전자현미경실 방문
13:30 ~ 18:40		심포지엄	기조연설, 전문가 발표

페트라 프롬 교수 약력(기조 연설자)



□ **성　　명** : 페트라 프롬 교수
(Petra Fromme)

□ **소　　속** : 아리조나주립대 / 미국
(Arizona State Univ, Biodesign Institute)

○ 직　위 : 생화학과 교수, 바이오디자인연구소 응용구조규명센터장

※ 바이오디자인연구소: 연구소 산하 15개 연구센터

□ **학　　력**

○ 1988　베를린기술대, 화학박사 학위

○ 1998　박사 학위

□ **경　　력**

○ 2002 ~ 현재　아리조나주립대 생화학과 교수

○ 2014 ~ 현재　바이오디자인연구소 구조생물연구센터장

○ 2015 ~ 2017　분자과학부 이사 교수

참석기관 소개

[미국] 아리조나주립대(BDI)

기 관 명	바이오디자인연구소 (Biodesign Institute)	특 징	세포막단백질 분석 선도기관
직 원 수	600명	위 치	아리조나주립대
설 립 일	2004년 12월		
주요활동	• 신약개발, 진단마커 개발 등 연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기 관 명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	특 징	다국적 제약사
직 원 수	5만 5천명	위 치	스웨덴/영국
설 립 일	1999년(스웨덴 아스트라+영국 제네카 합병일 기준)		
주요활동	• 2017년도 매출액 225억 달러(25조 원) • 백만 건 이상의 특허 보유 • 2014년 화이자가 110조원에 인수하려다가 무산됨		

[미국] 화이자(Pfizer)

기 관 명	화이자(Pfizer)	특 징	의약품&백신 개발/생산
직 원 수	92,400 (2018)	위 치	미국 뉴욕(본사)
설 립 일	1849년		
주요활동	• 면역학, 종양학, 심장학, 내분비학 및 신경학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학 분야 의약품 및 백신 개발 & 생산 • 의약품 품질 및 안전, 가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매진		

[미국] SLAC 국립가속기연구소

기 관 명	SLAC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특 징	국립가속기연구소
직 원 수	1,684명	위 치	스탠포드대
설 립 일	1962년		
주요활동	• 세계에서 가장 긴 선형 가속기(3.2Km), 1966년 가동(세계에서 가장 긴 직선 물체) • 전자빔을 사용하는 입자물리학의 이론 및 실험에 중점 • 원자 및 고체 상태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의학 등 연구 수행		

[일본] 오키나와 과학기술연구소(OIST)

기 관 명	오키나와과학기술연구소	특 징	대학원 대학 및 연구소
직 원 수	학생수 79명	위 치	오키나와/일본
설 립 일	2011년		
주요활동	• 과학분야 5년제 박사 학위 프로그램 • 교수진·학생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모집 • 연간40명의 대학원생 모집(영어 수업&연구)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기 관 명	Uppsala University	특 징	최고 공립대
학 생 수	42,559명	위 치	웁살라, 스웨덴
설 립 일	1477년		
주요활동	• 신학, 법률 (캐논 법과 로마법), 의학, 철학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9(목)】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자	과 장	정 희 석	
			팀 장	박찬국	주무관 정민호
		연 락 처	054-880-3324		

귀농 전국 1위, 경북으로 귀농하자!

- 경북도 및 11개 시군 '어 팜 쇼(A-Farm Show) 박람회' 참가, 귀농 1번지 종합 정보 제공에 나서 -

경북도는 8월 30일부터 3일간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어 팜 쇼(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 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시도 및 지자체 정책 홍보관, 스마트농업관, 창업·벤처관 등 총 90여개 부스와 주제별 귀농 컨퍼런스 및 소통마당, 지자체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된다.

'100년 미래, 100년 먹거리!' 라는 슬로건으로 농촌 지역에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층과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장년층까지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과 기존 박람회 홍보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귀농귀촌 트렌드에 맞는 전시, 행사 등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실전형 박람회로 개최 된다.

경북도와 11개 시군(김천, 영천, 영주, 의성 등) 귀농인 및 담당 공무원 90여명이 운영하는 12개 정책 홍보관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귀농 및 청년 지원 정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도는 거주와 현장 교육이 동시에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전국 유일하게 2개소를 운영(영주, 영천) 중이며, 시군별 기후와 환경에 맞는 고소득 작목, 도내 주요 농수산물(사과, 포도, 고추, 참외 등 17개 품목 전국 1위)생산 현황 소개 등 귀농 최적지 경북만의 매력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귀농귀촌 통계 조사 결과, 2,176가구(3,205명)가 귀농하여 전국 귀농 11,961가구(17,856명)의 18.2%를 점유, 15년간 전국 1위를 고수하여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만의 매력은 타시도 보다 앞선 정책 발굴 및 지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기반 구축, 다양한 고소득 작물과 많은 선도 농업인들이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침체된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새바람 행복 경북!

2019 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 참가

❖ 귀농귀촌 최적지로서 **우리도의 특·장점을 도시민에게 소개**하고 **귀농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9 A-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

○ 기　　간 : 2019. 8. 30(금) ~ 9. 1(일) / 2박3일

○ 장　　소 : aT센터(제1·2전시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도 참가 계획》

- 참여시군 : 도 및 11개 시군(김천, 영주, 영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고령, 성주, 예천, 봉화)
- 총부스 : 12개소(도 1, 시군 11)
- 운영인원 : 89명(공무원 43, 민간인 46)

○ 전시구성 : 지자체 홍보관, 스마트농업관, 창업·벤처관 등

개막식 일정

○ 일 시 : 2019. 8. 30(금) 11:00~12:30

○ 장 소 : 제1전시장 메인무대

○ 참 석 : 200명 정도(**국무총리**, 동아일보·채널A 사장 등)

구 분	시 간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1:00~11:05	'5	국민의례	
	11:05:~11:10	'5	내외빈 소개	
	11:10~11:15	'5	대회사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
	11:15~11:45	'30	축사(6명 정도)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11:45~11:50	'5	기념촬영	
	11:50~12:30	'40	전시장 투어	

<'18년 시군별 참여현황>

- **참여시군 : 9개 시군**(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 **총 부 스 : 10개**(도 1, 시군 9)
- **운영인원 : 70명(공무원 36, 민간인 34)**

2018년도 귀농귀촌 통계 (2019. 6.27. 발표)

❖(농식품부+통계청) '18년 시도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발표
❖道, 귀농 2,176가구로 '04년부터 15년간 부동의 전국 1위 고수

□ 귀농·귀촌 현황

○ 귀농 : 전국 11,961가구(17,856명) 중 경북 2,176가구 전국1위(점유율 18.2%)

⇒ 전년대비 전국 669가구(5.3%)감소, 경북은 140가구(6%) 감소

* 경북(2,176가구 3,205명, 18.2%) 〉 전남(2,026가구, 16.9%)〉 경남(12.6%) 順

* 경북 귀농가구 변화 :'04)334가구 →'09)1,118 → '15)2,221→ '18)2,176

○ 귀촌 : 전국 328,343가구 중 경북 38,500가구로 전국3위(점유율 11.7%)

⇒ 전년대비 전국 5,786가구(1.7%) 감소, 경북 1,688가구(4.6%) 증가

* 경기(26.4%)〉 경남(12.1%)〉 경북(38,500가구, 53,767명,11.7%) 順

* 경북 귀촌가구 변화 : '13)33,148가구 → 14)34,888 → '15)35,363 → '18)38,500

○ 연령대별

- 귀농 : 30대 이하(21.6%), 40대(14.2%), 50대(33.9%), 60대 이상(30.3%)
- 귀촌 : 30대 이하(48.1%), 40대(16.7%), 50대(17.6%), 60대 이상(17.6%)

○ 시군별

- 귀농 : 의성 172가구〉 상주 168〉 영천 160〉 예천 142 〉 김천 126 〉 성주 125
- 귀촌 : 포항 4,442가구〉 경주 4,309〉 구미 4,012〉 경산3,732〉 칠곡 3,574

□ 연도별 현황

○ 총괄 : 40,676가구(56,972명) *'17년 대비 가구수 3.9%↑, 가구원수 2.1%↑

구 분	합 계		귀 농		귀 촌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2016년	39,584	55,610	2,323	3,568	37,261	52,042
2017년	39,128	55,795	2,316	3,469	36,812	52,326
2018년	40,676	56,972	2,176	3,205	38,500	53,767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9(목)】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작성자	과 장	정 희 석	
			팀 장	박찬국	주무관 서열환
		연락처	054-880-3323		

‘2019 경북 농어업인 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 식량생산, 농수산물수출 등 10개 부문에서 최고 농어업인 선발 -

경상북도는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공헌한 우수 농어업인 11명을 ‘2019년 경북 농어업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경북 농어업인 대상은 도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4회째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부문별(10개 부문)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232명을 선발하였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도지사 상패와 해외 선진농업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부문별 대상선정 분야는 ▲식량생산부문 ▲친환경농업부문 ▲과수화훼부문 ▲채소특작부문 ▲농수산물수출부문 ▲농수산물가공유통부문 ▲축산부문 ▲수산부문 ▲농어촌공동체활성화부문 ▲여성농업인부문이다.

농어업인 대상 추천은 시·군에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노력, 시장개척,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9월 11일까지 도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대상자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지심사를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2019 경북 농어업인대상은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수

여할 계획이며, 농어업인 대상 신청(추천)과 관련하여 시·군 읍면동 사무소, 농정부서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김천에서 샤인머스켓(2.5ha)을 재배하고 있는 농어업대상 수상자 여봉길 씨(61세)는 농어업인대상 수상을 계기로 “농업과 정보통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 수출농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접목하고 있으며, 농가 인지도 향상과 대형유통업체로 부터 지속적인 계약체결 이어지고 있다” 고 전해왔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역농어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우수 농어업인을 포상함으로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좋은 계기” 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9(목)】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 성 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구자숙	주무관 이은숙
		연 락 처	054-880-3788		

환절기 · 추석명절은 감염병 예방예절로 건강하게!!

- 손 씻기 · 기침예절만 잘 지켜도 많은 감염병 예방 -

- 경북도, 건강을 위해 기침예절 · 올바른 손 씻기 준수 당부 -

경북도는 환절기, 추석명절 대이동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쉽고 효과적인 기침예절과 올바른 손 씻기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손만 잘 씻어도 설사질환(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을 약 30% 줄일 수 있고, 호흡기질환(감기, 독감 등) 발병을 약 20% 줄일 수 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손 씻기를 셀프백신(do-it-yourself Vaccine)이라고 할 만큼 손 씻기를 감염병 예방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손 씻는 시기와 방법은 가장 중요하며 ▲화장실 이용 후 ▲음식 먹기 전·후 ▲음식 준비 전 ▲아픈 사람 간병 시에 손을 잘 씻어야 한다.



또한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르게 손을 씻지 않으면 상당수의 세균이 손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바른 기침예절은 바이러스감염의 주원인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2~3m 바이러스가 노출되므로 휴지, 손수건, 또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야 하며, 기침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경북도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손 청결에 있음을 알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기침예절에 대한 실천율 확산을 위해 '도민 건강지킴 수호(手護)천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 방문 어르신을 대상으로 5단계 감염병 예방교육 과정 수료 시 수호천사 서약 및 홍보물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내 4~5학년 초등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기침예절 인지도 및 실천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습관이 형성·정착되는 중요한 시기인 학생들에게 향후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재광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그동안 발병한 감염병 원인은 두 손을 통해 발생했다" 며

"손 씻기와 기침예절을 감염병 예방예절로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개 하겠다" 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8. 29(목)】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작 성 자	과 장	김 재 준	
			팀 장	도규명	주무관 금창호
		연 락 처	054-880-3607		

경북도, 벌초·성묘객 편의 제공을 위해 임도 개방

- 개방에 앞서 도내 임도 전구간 일제정비 -
- 노폭이 좁고 곡선 구간이 많아 안전운행 당부 -

경상북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소를 찾는 벌초·성묘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도내 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나 임산물의 외부이동을 비롯하여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해 만든 산림 내 도로로서 경북도는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2,623㎞를 개설했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전 구간에 대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고 노면 및 시설물을 일제정비 하여 벌초·성묘객이 최대한 편하게 임도를 이용하도록 했다.

한편, 위험구간 및 휴양림관리 등으로 인한 일부통제구간이 있음에 따라 이용객들은 시·군 산림부서에 사전문의를 통해 개방여부 등의 세부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임도는 일반도로와 달리 길폭이 좁고 곡선 구간이 많아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통행 시 저속주행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훼손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1 시군별 민유임도조성완료 및 폐쇄구간 현황

※ 민유임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사유림에 설치한 임도

시군명	시설거리 (km)	임도폐쇄내역		개방거리 (km)	비고
		거리(km)	시 종 점		
합 계	2,623.49	12.54		2,611.98	
포항시	146.71			146.71	
경주시	126.25			126.25	
김천시	105.72	6.00	대덕면 추량리 ~ 대덕면 대리	99.72	
안동시	184.22			184.22	
구미시	103.63			103.63	
영주시	88.18			88.18	
영천시	123.75			123.75	
상주시	132.74			132.74	
문경시	130.34			130.34	
경산시	101.46			101.46	
군위군	124.04	4.00	고로면 장곡리 ~ 고로면 장곡리	120.04	
의성군	147.49			147.49	
청송군	118.43			118.43	
영양군	117.64			117.64	
영덕군	100.65			100.65	
청도군	109.40	1.90	청도읍 월곡리 ~ 청도읍 월곡리	108.50	
고령군	109.14			109.14	
성주군	131.44			131.44	
칠곡군	123.32			123.32	
예천군	125.07			125.07	
봉화군	91.31	0.64	상운면 문촌리 ~ 상운면 문촌리	90.70	
울진군	79.63			79.63	
울릉군	2.93			2.93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제6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개회식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 30일(금) 오후 2시 도청 동락관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한다.